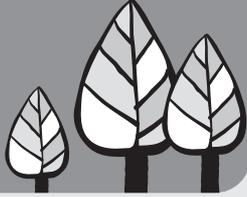


축산 소식



한우

송아지 출생 조짐
휴대폰이 알려준다
농진청, 농가 번식효율 개선 도움 기대

앞으로는 송아지가 태어나기 전에 농장주가 미리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소 번식효율 개선을 위해 송아지 출생 시 휴대 전화로 송아지 출생을 알려주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송아지 출생 알림이는 어미의 몸속 생식기에 주입해 놓으면 송아지가 태어나기 약 1시간 전에 휴대 전화로 “송아지가 세상에 나옵니다. 받아주세요”라는 음성알림과 동시에 문자로 어미 개체번호가 전송돼 농장주가 미리 송아지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송아지 출생 알림이’는 어미소의 몸속(생식기)에 쉽게 주입하고 배출 또한 용이하며 한 번 사용한 기기는 수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많은 두수에 중복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농장주가 분만 준비를 할 수 있어 송아지 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번식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

박성재 농촌진흥청 낙농과 박사는 “송아지 분만이 가까운 어미 소의 상태가 지나치게 아위었거나 비만이 심한 경우, 이 기기를 활용하면 사전 간호와 분만 시 신속한 관리가 가능해 송아지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원경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안전하게 태어난 송아지의 건강과 육성을 향상과 더불어 어미소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생산성 향상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젖소와 한우의 번식효율을 높이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농가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경제 이혜진 기자 Ree@chukkyung.co.kr

양돈

농진청, 재래돼지 고기맛
복원 합성 씨돼지 개발

농촌진흥청은 재래돼지의 고기맛을 살리되 적은 산자수 등 재래돼지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씨돼지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20년에 걸쳐 고유 토종인 재래돼지를 복원해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맛있는 돼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합성씨돼지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해 집단을 폐쇄시켜 육종해 낸 종돈으로 고정된 유전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된 합성씨돼지는 복원된 재래돼지(수돼지)와 개량된 돼지(국립축산과학원 개발 축진등록 암돼지)를 3년에 걸쳐 계획교배를 통해 재래돼지의 혈액비율이 38%정도 유지토록 고정한 것으로 산자수 감소와 증체지연 등 재래돼



지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발된 합성씨 돼지의 돼지고기에 대해 관능평가 등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육질평가 전문가 그룹의 평가에서는 외관과

식미평가(6점 척도)에서 일반 개량된 돼지고기에 비해 육색 1.8~2점, 향미 0.15~0.7점, 전체 기호도에서 0.6~0.8점 높게 조사됐다.

일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량종 돼지(LYD3원교잡돈)보다 합성씨돼지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FTA대응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이번에 개발된 합성씨돼지를 시범적으로 우선 보급할 예정”이라며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량돼지의 생산성 향상과 육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 홍정민 기자 smart73@afnews.co.kr

양계

질병 발생률 90% 낮추고 산란율 22% 향상
 종합기술컨설팅으로 농가당 소득 2억 7천만원 향상

농촌진흥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양계단지에 2009년부

터 종합기술을 투입한 결과, 질병 발생률은 90% 낮아지고 산란율은 22% 높아져 농가당 소득도 2억 7천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51억원을 투입해 1994년부터 전국에 25개 양계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사육수수의 약 30%인 약 2천만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양계단지 조성목적은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생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공동방역, 생산물의 공동판매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개별농장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지 내 질병이 만연해 산란율이 표준산란율 대비 10~15% 낮을 뿐만 아니라 개별출하를 하면서 판매단가도 낮아지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원양계단지 역시 82,860㎡의 면적에 10개의 농가가 모여 60만수 정도의 닭을 키우고 있으나 개별 방역과 개별 출하 등으로 산란율이나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었다. 농촌진흥청은 동원양계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설·환경 분야, 사료·음용수·미생물, 경영, 질병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해 이에 대해 매월 농가고



계사환경 모니터링

육을 통해 기술변화를 가져왔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료품질 모니터링, 음용수 수질 분석, 미생물제제 분석, 계사환경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으며 영주시 지원으로 설치하는 미생물제제 제조공장의 설치에서 운영까지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미생물제제를 생산하고 농장에서 값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석기금진료연구소에서는 매월 3회씩 계사마다 15수씩 채혈해 각종 질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동원양계단지에 맞는 백신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갔다. 그 결과, 동원양계단지 내 질병 발생률이 90% 정도 낮아지고 마리당 72주간 산란수도 2008년 247.4개에서 2010년 301개로 22% 향상돼 개별 농가당 소득도 2억 7천만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단지 내 10개 농가 모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안에 HACCP 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낙농

**맛, 안전, 가격 3박자 고무
갖춘 국산 육우고기 드세요!
컬투쇼와 함께하는 '육우사랑 이웃
사랑 가을대축제' 성료**

우리 소고기인 육우의 우수성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공개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고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서울 목동 파리공원에서 SBS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공개방송과 연계한 '육우사랑 이웃사랑 가을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육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이웃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1+이상의 최고급 국내산육우 한마리를 준비하여, 육우요리(육우직화구이, 육우불고기, 아채육우전, 허브육우주먹밥 등) 무료시식코너를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 육우를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위별 육우고기 전시 및 요리 전시와 포토존 운영, 개그맨 황영진 사회로 '육우 바로알기 퀴즈', 육우 로테오 게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하였다.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육우캐릭터상품(장바구니)과 국내산육우 육포가사은품으로 제공되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진행된 SBS 라디오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에는 비스트, FT아일랜드, 박상민, 화요비, BMK, 가비엔제이 등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하여 흥겨운 축하 무대를 가졌으며 육우고기파티, 다문화가정 장기자랑 등 가을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고조시켰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국내산 쇠고기 육우도 알리고, 다문화 가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국내산 전문고기소 육우의 우수성을 직접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2시탈출 컬투쇼' 홈페이지에서 '육우'와 관련된 사연과

‘육우 많이 먹기 대회’에 응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초청가족인 다문화가정에도 식사제공 및 방송참여 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또한 방송 중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출연하여 행사취지 및 국내산육우의 우수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산육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날 녹음된 방송은 11월 7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SBS라디오 파워FM(107.7MHz)에 방송되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at@livesnews.com

양봉

2015 세계양봉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직간접 경제유발 효과 425억 원 예상

2015 세계양봉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 된다.

9월 21일~25일까지 5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11 세계양봉대회에서 국제양봉협회연맹은 2015 세계양봉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이번 아르헨티나 세계양봉대회 기간 중 우리나라는 2015년 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중국과 경쟁을 펼친 결과 국제양봉협회연맹 회원국들로부터 88표를 얻어 67표에 그친 중국을 11표차로 제치고 최종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3년 일본, 1993년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세계양봉대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됐다.

2015년 세계양봉대회 유치는 전국의 4만 양봉인의 열원과 양봉협회, 양봉농협, 양봉유통업체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 대전시 및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낳은 결과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양봉대회 유치를 위해 2010년 아시아양봉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고 이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2011 세계양봉대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2015세계양봉대회유치위원장)은 “2015 세계양봉대회는 2015년 10월경 대전에서 개최되며 80여개 국가에서 30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총 행사참여 인원은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에 발전된 한국의 양봉 기술을 알려 양봉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세계양봉대회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직접소비 효과 125억원(대전시 예상), 양봉산물·기구 수출효과 300억원 등 총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경제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